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박 영 신¹⁾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김 의 철²⁾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650명이었다. 성인 여자 825명 중에, 전업주부가 404명, 취업주부가 421명이었다. 성인 남자 825명은 분석대상 전업주부의 남편 404명, 취업주부의 남편 421명이었다. 질문지는 Bandura(1995)의 어려움극복효능감 척도를 번역하였으며, 그 외에 배우자 정서적 지원 척도 및 행복 척도 등을 포함하는 질문지를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분석 결과, 전업주부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 중에 배우자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의 전체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자녀행복, 월평균 수입, 연령의 순서를 보였다. 취업주부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전체효과는 배우자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 자녀행복, 월평균 수입, 학력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전체효과는 어려움극복효능감, 배우자 정서적 지원, 직업성취의 순서를 보였다.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전체효과는 배우자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년기 성인 남녀 집단 모두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은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네 집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차이가 있었다. 즉 전업주부든 취업주부든 여자들은 자녀가 행복할수록 행복하였으나, 전업주부 남편이든 취업주부 남편이든 남자들은 자녀의 행복이 본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의미있는 변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자들은 직업에서의 성취가 중요하였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자녀의 행복이 의미있는 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취업주부는 자녀의 행복보다는 본인 직업에서의 성취가 두 배 정도로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전업주부 남편과 취업주부 남편 모두 배우자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라는 세 변인이 행복을 구성하는 핵심 변인인 점에서는 일치하였으나, 취업주부 남편이 전업주부 남편에 비해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컸다. 한편 전업주부는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대해 직접효과가 있었으나, 취업주부는 간접효과만 있었는데 직업성취 효과크기의 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남편 집단에서는 월평균 수입의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직업을 가진 경우는 월평균 수입 자체보다는 직업에서의 성취감이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 중년기, 행복, 배우자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 자녀 행복, 월평균 수입

1) 교신저자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 yspark@inha.ac.kr)

2)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 서 론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학문적 탐구(Csikszentmihalyi, 1990; Diener & Suh, 2000)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성별 차이만이 아니라, 결혼한 성인을 전업주부, 취업주부 및 그들의 남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 집단의 행복 형성요인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주부의 전통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전업주부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취업주부, 이들과 부부관계인 남편 집단 각각의 행복 형성요인에 대한 분석은, 행복에 대한 단순한 성차 분석을 넘어서는 흥미로운 결과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결혼한 중년기 성인으로서 공통점, 결혼한 성인 여자 또는 성인 남자로서의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통점만이 아니라 중년기 성인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 여자 집단 내에서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점,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 집단과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진 집단의 차이점 등, 각 집단들 나름의 고유한 특징들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중년기 성인들이 행복에 이르는 공통분모는 무엇이며, 같은 성인이지만 성별로, 주부유형별로, 또는 직업유무별로 행복 지각과정에서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중년기 성인의 행복 형성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시도하는데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직업유무에 따라 전업주부 집단의 행복모형과, 취업

주부 및 남편 집단의 행복모형을 각각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과 행복의 관계에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기로 한다. 선행연구들은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 구성요인, 성별에 따른 행복의 차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행복의 차이, 사회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업성취 월평균 수입 학력 연령과 행복, 행복 이해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라는 일곱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1.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 구성요인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과 한영석(2003)이 한국 성인 남녀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을 탐색한 결과에 의하면, 16개 요인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경제력,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사회 정치 문화 환경, 종교, 이타심, 자녀의 바른 성장, 부모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와 사랑과 신뢰, 대인관계, 외모, 긍정적 인생관, 건강이 포함되었다.

김은미, 구재선과 최상진(2003)은 행복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고등학생과 성인들의 표상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행복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화목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성인 집단에서는 가족지향성과 자녀지향성이 부각되었으며, 청소년 집단에서는 가족지향성 외에도 개인적 성취지향

성이 부각되었다.

이외에도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6b)이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 측면과 관련되어 있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자원으로서 경제력,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요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서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조절과 같은 심리적 특성으로 구현되는 통제감의 중요성,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나, 가정 학교 직장과 같은 구체적인 집단 내에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은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외에도 학업성취, 건강, 여가생활 등이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요소로 포함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은 돈이 있으면 행복 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 성인과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의 시각에서 비교한 바 있다. 심리적 자원으로 자기효능감, 관계적 자원으로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 경제적 자원으로 월평균 수입을 다루었다. 이외에도 학력, 연령 및 직업성취와 자녀성공 변인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변인들의 행복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한 바 있다.

2. 성별에 따른 행복의 차이

성별에 따른 행복의 차이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행복 정도에서의 성차를 분석한 경우와, 성별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경우이다.

행복 정도에서의 성차에 대한 연구를 보면, 차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혼재하고 있다.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과 임지영(2003)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행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행복 정도에서 성차가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행복하였다. 김명소와 한영석(2006)이 성인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성별로 행복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중년 남성이 중년 여성보다 행복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생존과 성장의 요소에서 중년 남성이 높은 행복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관계 요소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행복 전체 점수에서는 성차가 있었지만 하위변인에 따라 성차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함하여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행복 지각 정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Lucas와 Gohm(2000)은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성차와 관련하여 서양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개관한 결과, 연구마다 결과에 차이가 있어 주관적 안녕감에서 성차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단순한 설명이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서 성차에 대한 연구들이 서양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회적인 맥락이나 문화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고 보았다.

그러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성별 차이가 확인되어 왔다.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과 임지영(2003)의 연구에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중다회귀분석 한 결과, 성취 및 자기수용,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고유한 행복의 조건에 차이가 있었다. 김명소와 한영석(2006)이 중년 남성과 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별분석 한 결과에 의하면, 중년 남성의 행복은 자기수용감, 여가,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에 의해 판별되었으며, 중년 여성의 행복은 자기수용감,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에 의해 판별되었다. 자기수용감과 여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점에서는 일치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중년 남성은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가, 중년 여성은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이 행복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b)에 의하면, 성별 집단 간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서 현저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남자 직장인 집단의 행복은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직업성취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부각되었다. 여자 직장인 집단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이 행복을 설명하는 가장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업주부 집단 경우는 자녀의 성공과 월평균수입이 행복에 대해 높은 설명변량을 나타냄으로써, 세 집단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녀 직장인 집단과 달리 전업주부 집단에서는 자녀의 성공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특이하였는데, 이는 중년기 여자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혜자와 방희정(2006)은 자녀가 있는 여자들은 모든 연령에서 아내로서의 정체성보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우선함을 지적하고, 한국 중년 여자의 자기정체성이 아내보다 어머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남자들의 자기는 타인과 구별되는 독립성이 중요하지만, 여자들의 자기는 타인과 연합하는 관계적 자기를 갖는다는 정신분석학자나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의 시각에 토대하여, 자녀를 둔 여자들은 여성의 원형으로 여겨지는 어머니라는 정체성이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중년 여자들의 이러한 어머니로서 정체성이 중년 남자들과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소에서도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즉 중년기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은 자녀와 관련된 요소들로 인해 행복을 더욱 지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종구, 이해경과 김명소(2003)가 자기개념 요인구조에서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총 16개 자기개념 요인 중에 8개 요인에서 성차가 있었다. 신체적 매력과 경제력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자기에서는 남자가 더 긍정적이었고, 개인정신적 자기 중에서 직업성취, 지능 및 학업성취, 정서조절능력 및 여유에서는 남자가, 무능 및 사회적 위축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관계적 자기 중에 긍정적 부모역할과, 집단적 자기 중에서 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은 여자가 더 높았다. 여기에서

부모역할과 관련된 자기개념은 아이들을 잘 챙김, 자녀교육에 투자,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 아이들 학교성적에 관심, 부모 역할 잘 수행, 가정 일에 시간들임, 가장 친밀한 사람은 자녀, 자녀 진로에 관심 많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문항들을 검토해 보면, 주로 자녀들을 부모로서 양육하고 보살피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직업이나 학업과 같은 분야에서의 개인적인 성취와 관련해서는 남자들이 더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고,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이나 종교활동 등 집단적 자기개념은 여자들이 더욱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자기개념 구조의 차이는, 남자들이 본인의 직업적인 성취와 관련하여 더욱 행복감을 지각하고, 여자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의 행복이나 자녀의 성취와 관련하여 더욱 행복감을 지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남자들의 행복은 개인적인 성취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면, 여자들의 행복은 가정에서의 자녀 보살핌이나 종교활동 등 보다 가정적이고 관계적이며 집단적인 측면에서 얻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남자 직장인은 직업성취가, 전업주부는 자녀 성공이 행복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박영신, 김의철, 2009b)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3.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행복의 차이

중년기 성인 여자 집단 내에서도 직업유무에 따라 행복과 관련된 심리가 다를 가능성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중년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을 분석한 차영란, 김

기범과 전경숙(2007)의 연구에 의하면, 40대 직장 여성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책임과 가정에서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이중 역할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윤과 김효선(2008)은 맞벌이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및 가정에서 성역할 행동특성의 차이와 직장-가정 양립의 문제를 연구한 바 있다.

취업주부들이 직장가정에서의 과중한 역할로 인해 겪는 부담은 심리적 갈등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재윤과 김혜숙(2003)이 우리나라 관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가정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을 때 성차가 있었으며, 취업주부들은 직장-가정간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혜련과 최서연(2001)이 기혼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직장-가정 갈등으로 인해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이 낮아지고 결국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혼의 성인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전업주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전업주부들의 경우에 직장-가정 갈등이 없다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업주부들도 자녀양육이나 남편 내조 등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다. 김혜원과 김명소(1998)의 연구에 의하면,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아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고,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주변의 압력을 많이 느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고 우울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집단

에서 행복의 요인이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혜원(1997)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변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업주부는 자녀의 성별이, 취업주부는 직업의 종류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딸만 가진 전업주부들은 아들만 있거나 아들과 딸이 함께 있는 전업주부들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 그리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취업주부는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등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인 외에 성역할태도도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었는데, 취업여부와 성역할태도가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전업주부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취업주부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금숙과 조증열(2004)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결혼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한 결과, 두 집단은 질적으로 다른 점들이 발견되었다. 김혜원(1997)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취업주부의 경우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전업주부는 전반적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면 심리적 안녕감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취업주부는 결혼만족도보다 오히려 긍정적/부정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결혼만족도의 하위변인 중에서 자녀관계에서의 만족도는 전업주부나 취업주부 모두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가 심리적 안녕감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자녀와 관련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공통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김기범과 전경숙(2006)이 40~50대 중년 여성의 일상을 기록하여 사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40대 전업주부들은 자신의 역할 중에서 '나(개인)'와 '엄마/아내'로서 역할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았고, 40대 취업주부들은 '주부' '직장인' '나(개인)'의 역할 만족도가 높고, 50대 취업주부들은 '직장인'으로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으로써, 취업주부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행복 경험과 관련되어 있었다.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을 비교한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과 이준택(2003)의 연구에 의하면,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은 심리적 안녕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직장여성이 전업주부보다 더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나타내었다.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한 하위변인 중에는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인생목표, 대인관계에서 직장여성이 더 높은 안녕감을 보였다.

남편 뒷바라지와 자녀양육 등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전업주부와, 직장생활과 더불어 집안일도 보살펴야 하는 취업주부는, 자녀의 성취와 행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고, 직업에서의 성취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는 행복이나 심리적 안녕감 외에도, 다양한 면에서 확인되어 왔다. 남순현(2009)이 40세에서 64까지 중년기 기혼여성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 및 직장에서의

일에 대한 몰입과 일에 대한 만족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취업주부가 더욱 일에 몰입하고 또한 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가 다양한 심리특성 및 행동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두 집단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4. 사회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 그리고 이들과 남편의 성별 차이 외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변인은 주위 가까운 사람들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는 사실은 아동(이정미, 이양희, 2007), 청소년(박영신, 김의철, 2009c), 청년(김민정, 이회경, 2006)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검증되어 왔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지원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전미애, 이종한, 2005)에서도 사회적 지원을 주는 양과 받는 양이 많은 집단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

여러 발달단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이 검증된 사실을 볼 때, 결혼한 성인에게 있어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 또한 성인의 행복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설명

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간접효과도 있음으로써,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인구의 25%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여성이 남성의 2배나 되는 사실에 주목하며 조현주(2006)가 중년기 우울증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우울증과 관련되는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으로서, 모성 역할의 상실, 경제적 빈곤, 생활 스트레스, 신체적 질병, 부모 이혼과 같은 어린시절의 역경, 불행한 결혼생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Kuh, Hardy, Rodgers, & Wadsworth, 2002; Sharon, Kurpius, Nicpon & Maresh, 2001), 그 중에 불행한 결혼생활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정서적 공감대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한 장춘미(2009)의 분석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의 지지행동은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매우 강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경로분석 결과를 보면,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갈등해결기술보다는 부부간의 지지적인 행동교환과 정서적 친밀감이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인 지원은 결혼만족을 통한 행복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자원과 기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시연과 서영

석(2010)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는 배우자 지원을 매개로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배우자의 지원은 결혼만족도에 큰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편이나 아내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지원은 성인의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핵심적인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허지연과 손은정(2008)이 남녀 중년기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시연과 서영석(2008)은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배우자의 지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한 결과,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남편 집단에서는 배우자의 지원이 일상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을 매개하였고, 아내 집단에서는 배우자의 지원이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을 매개하였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집단 모두에서 배우자의 지원은 결혼만족에 대해 매우 강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결혼한 중년 성인의 경우에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는 것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장수지(2010)도 부부간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밝혔다.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제공은 부부관계에서의 적응 수준을 높이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부부관계 적응의 설명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의 제공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의 수용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

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만족한 부부관계를 위해 사회적 지원이 의미있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록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공에 비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했으나, 부부관계효능감 역시 부부관계 적응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이 있었다. 부부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에서의 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가정생활만족도가 증진되고 더욱 행복감을 느꼈다.

이와같이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밝힌 연구들도 있다. 김은희와 이종한(2005)은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그리고 자기효능감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원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원이 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한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와 민병기(1999)의 연구모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5.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행복은 사회적 지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에 의해서도 증진된다. Bandura (1997)는 통제에 대한 신념 및 기술을 포함한

개념을 효능적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 심리변인임을 다양한 실험연구 결과들을 통해 밝혔다.

중년 부부의 직장-가정 역할 갈등이나 우울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주희와 이은희(2000)가 맞벌이 부부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경험하는 직장-가정 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대처방식의 효율성이 달랐는데, 대처방식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여기에서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 신념은 자기효능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허지연과 손은정(2008)은 사회적 지원만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고,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다양한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효능감은 행복과 관련된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신, 김의철과 박은실(2009)이 성인 집단 중에서도 초등학교 남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형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만이 아니라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 및 직무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교사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관련된 효능감,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효능

감,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효능감, 학교의 행정 업무처리와 관련된 효능감의 네 가지를 포함하였다.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정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연구에서, 박영신과 김의철(2008)은 부모들의 자기효능감 측정을 양육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 및 자녀와 의사소통효능감의 세 하위변인으로 구성한 바 있다. LISREL 분석결과에 의하면, 초등 및 고등학생 부모집단 모두에서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 하며,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성인들일수록,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andura(1995)가 제안한 자기효능감의 여러 하위변인들 중에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과 밀접히 관련됨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이 다양한 사회계층의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들에 대해 분석을 한 바 있다. 여기에서 심리적 자원으로서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성인과 노인들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직장인 경우에 직업에서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러한 직업성취나 자녀의 성공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본인의 행복감도 증진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의 연구에서 예언변인으로 월평균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 자녀성공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여자 직장인 집단의 경우에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을 예언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자 직장인들은 전업주부나 남자 직장인에 비해, 가정과 직장생활을 겸하는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효능감이 특별히 요구되고, 이러한 효능감이 있을 때 더욱 행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성인만이 아니라 초, 중, 고,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9c)에서도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청소년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간접적인 영향력도 있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심리적 자원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과 박영균(2010)이 LISREL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집단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 모두에서 세대차 지각과 이로 인한 세대갈등이 삶의 질을 낮추지만, 높은 자기효능감은 갈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증진시키는 영향력이 있었다. 여기에서 자기효능감 구인은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 효능감을 측정변인으로 포함하였다.

6. 직업성취, 월평균 수입, 학력, 연령과 행복

이상에서 살펴본 성별, 주부유형별,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이 행

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학생들 경우에 학업성취가 중요하듯이(박영신, 김의철, 2009c), 성인들 경우는 직업에서의 성취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이 경로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보다는 영향력이 적었으나, 직업에서 성취감을 경험하는 성인들일수록 더욱 행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이 성인 집단을 분류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자 직장인은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직업에서의 성취가 행복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전업주부나 여자 직장인과 달리 직장생활을 하는 남자 성인의 경우에 직업에서의 성취가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인 중에서 남녀 교사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박영신, 김의철과 박은실(2009)의 연구에서도 직무성취도는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으로써, 직업에서 성취경험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의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성취 외에도 행복의 조건으로서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6)이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와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경제적 요인이 삶을 질을 높이는 핵심적 요소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을 지적한 경우가 10명 중 3명 정도로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고, 이외에 자기조절,

여가생활, 화목한 가정생활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도 경제적 요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명 중에서 약 4명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자기조절 결여, 여가시간 부족, 건강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같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와 감소시키는 요소를 자유반응형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만 직접 기록하게 하고, 이를 질적 분석하였을 때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러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함께 측정하여 양적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요인이 의미있게 포함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관계적이고 심리적인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이 성인과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로분석에서 월평균 수입 변인이 제외되어도 행복모형의 적합도에 변화가 없었지만, 경로분석에 포함된 월평균 수입은 행복에 의미있는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돈이 없어도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행복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돈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사실이었다. 여기에서 다른 조건들이란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높은 어려움극복 효능감, 직업에서의 성취감, 자녀의 성공을 포함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행복의 차이를 분석한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과 임지영(2003)의 연구에 의하면, 월평균 소득과 학력에 따

라 행복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력이 대졸 재학 및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더욱 행복하였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회귀분석하였을 때 성취 및 자기수용, 경제력이 중요한 설명변인이었는데, 연령, 결혼여부, 월평균 소득, 학력, 직업에 따라 고유한 행복의 조건에 차이가 있었다.

이와같은 학력에 따른 차이가 행복에 대한 학력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간접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이 효과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학력은 행복에 대해 직접효과가 없었지만 직업성취나 자녀성공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학력이 높다고 해서 더욱 행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학력이 높으면 직업에서의 성취수준이 높아지고, 또한 자녀를 잘 양육하여 자녀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직업에서의 성취가 높고 자녀들이 성공하면 더욱 행복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학력은 한국 성인들의 행복에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연령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 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 연령 변인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형에서 연령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행복에 간접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연령이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가 없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행복과 무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음으로써, 연령이 많는지 적은지 여부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김혜원(1997)

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연령은 심리적 안녕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과 임지영(2003)이 20대에서 50대 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행복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연령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 상관분석을 했을 때, 연령과 행복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고 유의한 수준이었다. 상관의 강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연령의 증가는 높은 행복감과 관련되어 있었다. 다른 변인들과 함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연령이 투입되었을 때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령과 행복 두 변인만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두 변인이 무관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7. 행복 이해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

Diener와 Suh(2000)는 주관적 안녕감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특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와 Tay(2010)가 미국, 덴마크, 일본, 한국, 짐바브웨의 5개국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어제 즐거웠던 정도도 낮았다. 반면에 어제 의기소침한 정도 및 어제 화가 난 정도는 가장 높았으며, 어제 즐거웠던 정도에서 의기소침했던 정도를 제외한 정도도 가장 낮았다.

이러한 수치들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자원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예컨대 한국 사람들은 응급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도,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투명성 정도에서 모두 낮은 값을 보였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도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5개국 중에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Snyder(2010)도 정서적 안녕감과 신체적 안녕감을 위해 결혼만족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를 비교문화적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한국 문화에서 한국 사람들이 나타내는 토착적 특징들이 행복의 심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이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조화롭고 원만한 인간관계,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혜원과 김명소(2000)가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를 분석하였을 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에 대해 서구의 결과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긍정적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수용이나 환경지배력 못지않게 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과 한영석

(2003)의 연구에서도 한국 성인 남녀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16개 요인 속에 자녀의 바른 성장 및 부모친지간의 원만한 관계가 포함되었다. 김은미, 구재선과 최상진(2003)의 연구에서도 성인들의 행복한 사람에 대한 표상이 화목한 가정과 관련되어 가족지향성과 자녀지향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와같이 자녀와 관련된 변인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변인이 성인의 행복에 의미있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한국인이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며, 가족간 유대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요인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임은, 김의철과 박영신(2006b)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기혼 여성만이 아니라 성인 남녀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다. 인간관계에서 정서적 지원 외에도 학업성취의 수단적 가치, 자기조절의 중요성 등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로 밝혀졌다.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누적적으로 밝혀져 왔으며, 한국인의 행복 심리 이해를 위해 한국 문화의 특징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부모들의 자기개념은 자녀들과 공유된 자기를 가짐으로써 매우 토착적인 심리를 함축하였다(김의철, 박영신, 2006a; 박영신, 김의철 2004). 이러한 경향이 성인 남자보다는 실제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과 역할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성인 여

자 집단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2009b).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2008)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성인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자녀에 대한 신뢰 정도는 자녀의 성실성, 자녀의 순종, 자녀의 학업성취 등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자녀가 초등학생과 같이 어린 아동이거나 고등학생과 같이 성장한 청소년이거나에 관계없이, 부모들의 반응에 일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만족이나 행복이 자녀와 무관하지 않으며, 자녀를 신뢰할 수 있고 자녀가 바람직한 성취를 이루어나갈 때, 부모로서 가정생활만족도가 증진됨을 보여준다. 중년기 성인들의 행복이 자녀 변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 성인의 행복이 개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분히 관계적인 면과 결부되어 있으며, 인간관계 중에서도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토착심리가 행복의 심리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8. 연구모형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모형은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 성인과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한 연구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 성인만이 아니라 노인집단도 분석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따라 질적으

로 다른 특성들이 오차변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중년기 성인 집단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 연구모형을 재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와 같이 성인집단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및 그들의 남편이라는 성별 및 직업여부 변인을 동시 고려하여 질적으로 다른 각각의 네 집단을 대상으로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와같이 네 집단을 구분해서 박영신과 김의철(2009a) 연구모형에서의 가설들을 재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의 연구 결과로부터 자극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의 연구에서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예언변인으로 월평균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성취, 자녀 성공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전업주부와 여자 직장인 집단 및 남자 직장인 집단의 행복을 설명하는 요인들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의 연구에서는 여자 직장인 및 남자 직장인 집단 내에 미혼 및 기혼 집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비해, 전업주부는 기혼집단이었다. 그러므로 전업주부와 여자 직장인 집단의 차이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결혼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진 결과에서의 차이가 성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지, 성인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차이인지, 성인 중에서도 기혼과 미혼의 차이인지 측면에서 명료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 구분의 조작적인 정의가 좀 더 명료할 수 있도록 표집설계

를 새로 할 필요가 후속연구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 여자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로 구분하고, 성인 남자를 전업주부의 남편과 취업주부의 남편으로 구분하여, 이 네 집단 간의 행복의 형성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의 연구에서는 몇 개의 예언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밝힐 수 있도록 경로분석과 효과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대상을 표집하여, 다른 분석방법으로 검증하였을 때, 얼마나 일관된 맥락의 결과들이 밝혀지는지,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혼과 기혼이 구분되지 않은 채로 직장인 남자와 직장인 여자 집단이 분류되었을 때 성별에 따른 해석은 결혼여부를 오차변인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 결혼한 중년기 성인 중에 자녀를 두고 있는 남녀 부부집단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 연구의 경로모형은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모형과 기본적인 틀이 동일하되, 2개의 예언변인들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 연구에서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을 측정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 변인으로 함으로써, 정서적 지원의 대상을 발달단계에 맞추어 의미있는 타인으로 구체화 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는 기혼만이 아니라 미혼의 성인들도 분석대상이었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였지

만, 이 연구에서는 자녀를 둔 중년기의 남녀 성인만을 분석대상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결혼한 성인에게 중요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으로, 사회적 지원의 대상을 명시하였다.

또 수정한 예언변인은 자녀와 관련된 것이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 연구에서 자녀 성

공 변인은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다고 부모가 지각하는가를 질문하여 매우 실패에서 매우 성공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공만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도 성인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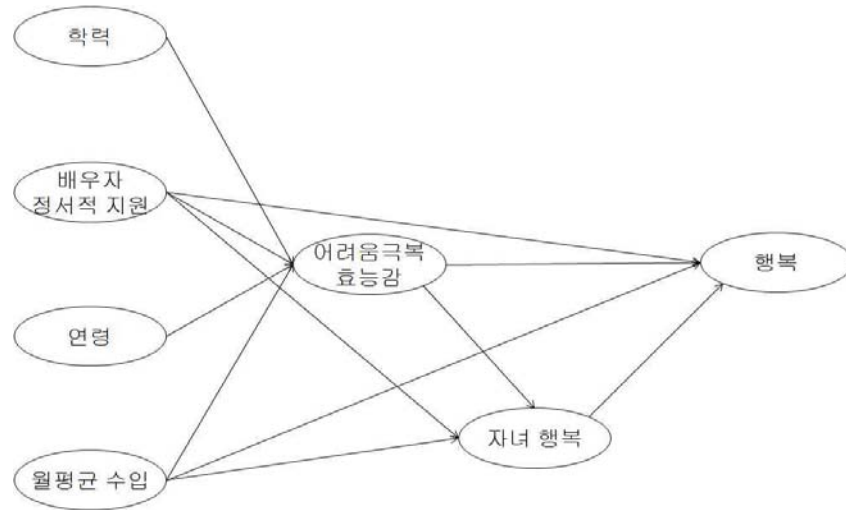


그림 1.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모형: 전업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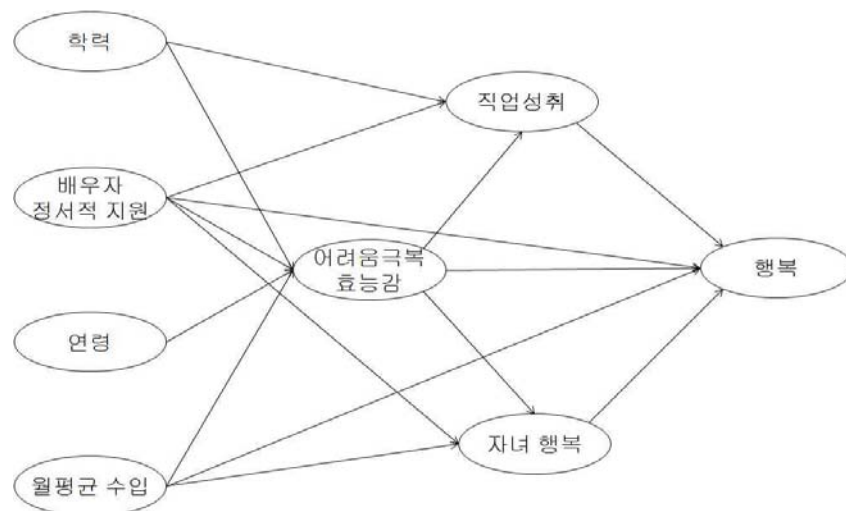


그림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모형: 취업주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남편

이 연구의 모형 내에서 의미있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문항의 수도 15개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와 관련 변인의 측정학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2개의 연구모형이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그림 2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이외에도 직업성취, 어려움극복효능감, 자녀 행복 변인을 매개로 하여 중년기 성인의 행복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모형이 만들어졌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은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 외에도 학력과 연령 및 월평균 수입의 영향을 받고,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성취 및 자녀 행복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따라서 취업주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남편 집단에서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능감 외에도, 직업성취 및 자녀 행복이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모형이 구성되었다. 한편 직업성취는 배우자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능감 외에도 학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자녀 행복은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의 어려움극복효능감 외에도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경로모형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경로모형은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논의(김의철, 박영신, 2006b)한 내용들을 함축한다.

그림 2의 모형에서 직업성취 변인을 제외한 것이, 전업주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모형으로,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다른 변인

들은 모두 그림 2와 동일하나, 네 집단 가운데 전업주부 집단 경우에는 직업이 없으므로 직업에서의 성취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 변인을 삭제하였다. 직업성취 변인이 삭제됨으로써, 직업성취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선이 함께 삭제되었으며, 이외에도 직업성취와 연결되어 있던 3개의 경로선, 즉 학력에서 직업성취, 배우자 정서적 지원에서 직업성취,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직업성취로 연결된 경로선이 함께 삭제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이 확정되었다. 전업주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검증은 그림 1을 기반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나머지 세 집단 즉 취업주부, 전업주부의 남편, 취업주부의 남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검증은 그림 2를 연구모형으로 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각 학교에서 초, 중, 고, 대학생 을 표집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질문지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성인집단은 모두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로 구성되었다.

표 1에 최종 분석대상이 정리되어 있다. 총 2,475명의 최종 분석대상 중에서, 학생은 총 825명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98명, 중학생 218명, 고등학생 214명, 대학생 195명

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412명, 여학생이 413명으로 구성되었다. 성인 집단은 분석대상 학생들의 부모들로 구성되었다. 학생의 아버지 825명, 어머니 825명으로 총 1,650명이 분석대상 성인 집단이었다. 825명의 어머니 집단 중에서 전업주부가 404명이었고, 취업주부가 421명이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남편집단이 404명, 취업주부의 남편집단이 421명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분석대상 중에서 자녀들의 연령 평균은 초등학교 11.70세(10~13세), 중학생 13.42세(12~15세), 고등학교 16.17세(15~18세), 대학생 21.16세(18~28세)였다. 자녀 전체의 연령 평균은 15.55세로서, 전업주부 가정의 자녀들 연령 평균은 15.42세, 취업주부 가정의 자녀들 연령 평균은 15.48세로서 거의 유사하였다. 성인 집단 중에서 아내들의 평균 연령은 43.08세였는데, 전업주부 집단의 평균 연령은 43.07세, 취업주부 집단의 평균 연령은 43.09세로서 거의 일치하였다. 두 집단 연령의 최빈치는 40세, 중앙치는 43세로 동일하였다. 전업주부들의 연령 분포는 32세~59세였고, 취업주부들의 연령 분포는 31세~60세로 거의 비슷하였다. 남편 집단 전체의 연령 평균은 45.97세였고, 전업주부 남편의 평균 연령은 45.95세, 취업주

부 남편의 평균 연령은 45.98세였다. 두 집단 모두 최빈치는 45세, 중앙치는 46세로 일치하였다. 전업주부 남편의 연령 분포는 34세~63세, 취업주부 남편의 연령 분포는 32세~60세로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전업주부나 취업주부는 연령차가 없고, 아내보다 남편이 평균 3세 정도 더 많았다.

분석대상의 직업 분포를 보면, 취업주부 집단 경우에 판매/서비스(39.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관리(24.0%), 전문/고위관리(19.5%), 노동/생산(17.1%)의 순서였다. 전업주부의 남편 집단은 사무/관리(42.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고위관리(21.4%), 판매/서비스(18.7%), 노동/생산(15.4%), 무직(2.0%)의 순서였다. 한편 취업주부의 남편 집단도 전업주부의 남편 집단과 같이 사무/관리(33.8%)가 가장 많은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28.5%), 전문/고위관리(19.9%)로 두 직업에 속하는 비율의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 노동/생산(16.3%), 무직(14%)의 순서를 보이는 점에서 전업주부 남편 집단과 동일하였다. 즉 취업주부 집단은 판매/서비스 직업을 가장 경우가 10명 중에서 4명 정도로 가장 많았지만, 취업주부 남편과 전업주부 남편은 모두 사무/관리 직업을 가진

표 1. 분석대상

구분	자녀					성인					전체
	초	중	고	대	계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	취업주부 남편	계	
남	88	112	112	100	412	-	-	404	421	825	1,237
녀	110	106	102	95	413	404	421	-	-	825	1,238
계	198	218	214	195	825	404	421	404	421	1,650	2,475

경우가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가정경제수준을 보면 중집단(75.1%)이 분석 대상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상 집단(12.7%)과 하집단(10.7%)이 각각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상 집단(1.0%)과 최하 집단(0.5%)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 집단의 반응분포는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 취업주부 남편의 하위집단별로도 거의 동일하였다.

사회계층은 중류층(48.1%)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중하층(26.4%) 중상층(17.0%)이 각각 20% 내외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하류층(5.7%) 상류층(2.3%)의 순서를 보였고, 극빈층(0.2%)과 최상류층(0.2%)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상분포의 형태

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네 하위집단별로도 이와 거의 유사한 반응분포를 나타내었다.

2.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성인용과 그들의 자녀용으로 구성되었다. 성인용 질문지에는 배경정보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직업성취, 월평균 수입, 가정경제수준, 사회계층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에서 대학원 졸업의 5점 척도로 표시되었으며, 연령은 직접 기록하도록 빈칸이 제시되었다. 직업은 무직, 노동/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사무/관리직, 고위관리/전문직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직업성취의 측정을 위해 객관적 직업

표 2. 측정 변인과 신뢰도

변인	문항 예	문 항 수	Cronbach's α					
			자녀 전체	성인 전체	아내		남편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업 주부 남편	취업 주부 남편
학력	학력	1	-	-	-	-	-	-
연령	연령	1	-	-	-	-	-	-
월평균 수입	가정의 월 평균 수입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1	-	-	-	-	-	-
직업성취	객관적 직업성취도/주관적 직업성취도	2	-	-	-	-	-	-
배우자 정서적 지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준다	6	-	.93	.94	.94	.93	.90
어려움극복효능감	매우 심한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5	-	.84	.85	.84	.82	.85
행복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15	-	.91	.90	.92	.91	.90
자녀 행복	나는 전반적으로 행복하다	15	.89	-	-	-	-	-

성취도와 주관적 직업성취도를 질문하였으며, 각각 매우 낮은 성취에서부터 매우 높은 성취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업성취 변인은 객관적 직업성취도와 주관적 직업성취도를 합한 총점으로 하였다. 월평균 수입은 가게 전체의 수입으로서, 금액을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최하에서 최상까지 5점 척도 중에 선택하게 하였다. 사회계층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인이 속하는 집단을 극빈층에서 최상류층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배경정보 외에 성인용 질문지에는 배우자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행복 변인이 포함되어 있다. 표 2에 측정 변인의 신뢰도가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 정서적 지원 변인은 연구자가 제작한 총 6개 문항으로서 성인 전체 집단의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93$ 으로 매우 높았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은 Bandura가 제작한 질문지를 번역했으며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의 신뢰도는 성인 전체 집단에서 $\alpha = .84$ 로서 비교적 양호하였다. 행복 변인은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신뢰도는 성인 전체 집단에서 $\alpha = .91$ 로 양호하였다.

자녀용 질문지에서는 성별과 연령 및 학교 급별에 해당하는 배경정보 문항이 포함되었다. 학교급별은 초, 중, 고, 대학교 중에서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선택하게 하였다. 자녀용 질문지에는 배경정보 외에도 자녀 행복 변인이 포함되어었는데, 성인용 질문지에서와 동일한 일반적인 행복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자녀 행복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9$

로 양호하였다.

3. 실시 방법

자녀용 질문지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 수업 시간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에 응답한 학생들에게 부모용 질문지를 나누어 주어, 각자 집에 가서 부모용 질문지를 받아오도록 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지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이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이름을 쓰지 않고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녀와 부모의 자료를 짝짓기 위해,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학생 부모 세트 로 질문지의 상단에 동일한 번호를 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 질문지를 서로 짝지을 수 있었다. 성실한 응답을 얻기 위해, 모든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선물을 피드백으로 제공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전업주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표 3은 전업주부의 행복과 관련 변인들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이다. 전업주부 집단의 행복은 어려움극복효능감과 $r = .58$ 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정서적 지원과도 $r = .49$ 로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녀 행복과

표 3.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호상관: 전업주부

(N=40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학력	1.00						
② 배우자 정서적 지원	.08	1.00					
③ 연령	-.19***	.02	1.00				
④ 월평균 수입	.18***	.04	.02	1.00			
⑤ 어려움극복효능감	.00	.29***	.12*	.04	1.00		
⑥ 자녀 행복	.12*	.21***	-.14**	.01	.12*	1.00	
⑦ 행복	.12*	.49***	.11*	.16**	.58***	.28***	1.00

* $p < .05$, ** $p < .01$, *** $p < .001$

도 $r = .28$ 로서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외에 월평균 수입, 학력, 연령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어려움극복효능감($r = .29$) 및 자녀의 행복($r = .2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전업주부 집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모형인 그림 1을 경로분석한 결과가 그림 3이다.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업주부 경우에 취업주부나 전업주부 및 취업주부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그림 2 참고)과 비교하여 볼 때, 다른 변인들은 모두 동일하고 경로선도 동일한데, 단지 직업성취 변인만 연구모형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직업성취와 연결된 경로선 3개가 삭제되어 있다.

그림 3의 모형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GFI = .99$, $AGFI = .91$, $NFI = .95$ 로서 모두 .90이 넘는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RMR = .04$ 로서 .05 미만으로 매우 양호하였다. 그림 3의 모형 적합도가 상당히 우수하므로, 전업주부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된 경로계수들을 보면,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행복으로 연결된 경로가 $P = .47$ 로 가장 높은 정적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정서적 지원이 $P = .32$ 로서 역시 매우 높은 정적인 값을 보였다. 이외에 자녀행복이 $P = .16$, 월평균 수입이 $P = .13$ 으로서, 어려움극복효능감이나 배우자 정서적 지원에 비해 낮은 값이지만, 마찬가지로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어려움극복효능감에 대해 배우자 정서적 지원이 $P = .29$ 로 높은 정적 경로계수를 나타내고, 연령은 $P = .12$ 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의한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자녀 행복에 대해서는 배우자 정서적 지원이 $P = .19$ 의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그림 3의 검증모형을 비교해 볼 때, 총 4개의 경로선이 삭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1개의 변인이 삭제되었다. 월평균 수입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는 유지되었으나, 월평균 수입에서 어려움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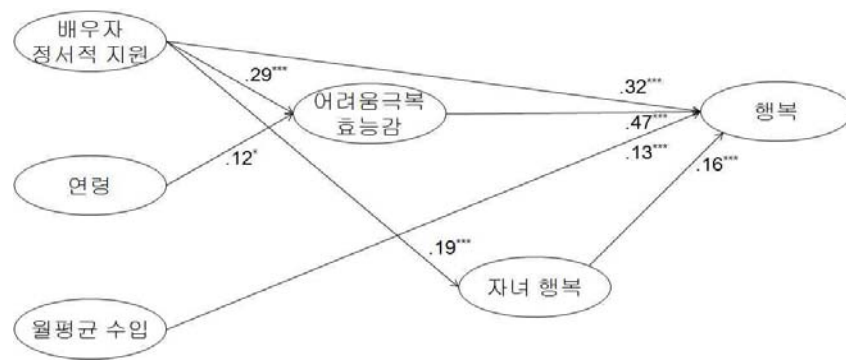


그림 3.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경로분석: 전업주부 (N=404)

복효능감, 그리고 월평균 수입에서 자녀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경로선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자녀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삭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력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무의미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력 변인이 검증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제외된 경로선과 변인을 검토해 볼 때, 전업주부의 행복은 학력과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학력의 높고 낮음이 전업주부의 행복을 설명하는 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월평균 수입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는 비록 경로계수 값이 다른 것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의미 있게 나타났기 때문에, 월평균 수입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이나 자녀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삭제된 것이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물론 월평균 수입이 어려움극복효능감이나 자녀 행복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값은 제외되었지만, 월평균 수입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가 남아 있으므로,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자녀 행복으로 연결된 경로의 삭제도 결과 해석에 큰 의미는 없다. 비록 이 경로가 삭제되었어도,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가 가장 강력한 경로계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비록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자녀 행복을 통해 행복으로 연결되는 간접효과는 삭제되었지만,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그림 3의 전업주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높은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 두 번째로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하였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어려움극복효능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다. 비록 어려움극복효능감이나 배우자 정서적 지원만큼 영향력이 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두 변인 다음으로는 자녀가 행복할수록 전업주부들은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전업주부들은 더 행복하였지만, 그 영향력의 정도는 다른 변인들

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학력수준은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에 기초하여 전업주부의 행복을 설명하는 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는 그림 3의 결과를 토대로 효과분석한 것이다. 행복에 대한 전체효과를 비교해 보면,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행복으로 연결된 전체효과가 .48이고, 동시에 배우자 정서적 지원에서 행복으로 연결된 전체효과도 .48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3의 경로분석에서는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배우자 정서적 지원보다 경로계수가 더 컸지만 전체효과는 같게 나온 이유는 배우자 정서적 지원과 행복 사이에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이러한 간접효과

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 행복이 행복에 대한 전체효과가 .16으로 정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간접효과는 없으므로, 전체효과는 직접효과와 동일한 값을 의미한다. 이외에 월평균 수입이 행복으로 연결된 전체효과도 정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연령도 간접효과로 인해 행복에 대해 전체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과계수는 매우 낮았다.

이러한 효과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업주부의 행복은 자신의 어려움극복효능감이나 이와 동일한 강도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행복을 직접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어려움극복효능감을 증진시키

표 4.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효과분석: 전업주부

(N=404)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학력	→ 어려움극복효능감	-.00 (- .04)	-	-.00 (- .04)
	→ 자녀 행복	-	.00 (- .04)	.00 (- .04)
	→ 행복	-	-.00 (- .04)	-.00 (- .04)
배우자 정서적 지원	→ 어려움극복효능감	.29 (5.98)***	-	.29 (5.98)***
	→ 자녀 행복	.19 (3.78)***	.02 (1.14)	.21 (4.28)***
	→ 행복	.32 (8.30)***	.17 (6.12)***	.48 (11.19)***
연령	→ 어려움극복효능감	.12 (2.42)*	-	.12 (2.42)*
	→ 자녀 행복	-	.01 (1.05)	.01 (1.05)
	→ 행복	-	.06 (2.37)*	.06 (2.37)*
월평균 수입	→ 어려움극복효능감	.03 (.52)	-	.03 (.52)
	→ 자녀 행복	.00 (.04)	.00 (.48)	.00 (.07)
	→ 행복	.13 (3.52)***	.01 (.51)	.14 (3.20)**
어려움극복효능감	→ 자녀 행복	.06 (1.16)	-	.06 (1.16)
	→ 행복	.47 (12.53)***	.01 (1.12)	.48 (12.51)***
자녀 행복	→ 행복	.16 (4.36)***	-	.16 (4.36)***

()는 t값

* $p < .05$, ** $p < .01$, *** $p < .001$

고, 또한 가정에서 자녀도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전업주부가 행복하게 되는 간접적인 영향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에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자녀가 행복할수록 전업주부가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이외에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더욱 행복하였는데, 이러한 월평균 수입의 효과크기는 자녀가 행복한 것보다 약간 적었다. 그러므로 약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전업주부는 월평균 수입의 증가로 인한 행복보다는 자녀의 행복으로 인한 행복의 정도가 더 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증가하고,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증가하면 행복이 증가함으로써, 연령은 행복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비로 그 영향의 정도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매우 작았으나, 유의하였다. 반면에 학력은 전업주부의 행복에 전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2. 취업주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취업주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호상관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의 전업주부 집단에서는 행복이 어려움극복효능감과 현저하게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는데 비해, 취업주부 집단에서는 배우자 정서적 지원과 $r = .60$ 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어려움극복효능감과 $r = .59$ 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업주부 경우는 세 번째로는 자녀 행복의 상관성이 높았는데, 취업주부 경우는 직업성취가 행복과 $r = .46$ 으로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자녀 행복도 행복과 정

적 상관을 보였지만, 직업성취와 행복과의 상관보다는 훨씬 낮은 $r = .27$ 의 값을 보였다.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계수이기는 하지만, 학력 및 월평균 수입도 각각 $r = .16 \sim .19$ 로 약간 낮지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행복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는 외에도,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 자녀 행복과 각각 $r = .21 \sim .28$ 사이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직업성취와 $r = .35$ 의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학력도 직업성취($r = .32$) 및 월평균 수입($r = .26$)과도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림 4는 취업주부 집단의 행복모형인 그림 2를 경로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2를 전업주부 대상으로 검증한 그림 1과 비교해 볼 때, 다른 변인들은 모두 동일하나 직업성취 변인이 추가됨으로써, 직업성취와 연결된 경로선 3개가 추가되어 있다. 그림 4 검증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보면, $GFI = .99$, $AGFI = .92$, $NFI = .95$ 로서 모두 .90이 넘었고, $RMR = .04$ 로서 .05 미만이었다. 따라서 그림 4의 검증모형은 적합도가 매우 높으며, 취업주부의 행복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었던 5개의 경로들 중에 1개 즉 월평균 수입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4개는 모두 유의하였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에서 행복으로 연결된 경로가 $P = .42$ 로 가장 높은 정적인 값을 보였다. 그 다음은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행복으로 연결된 경로로서 $P = .38$ 의 높은 정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세 번째로는 직업성취에서 행복으로 연결된 경로로 $P = .20$ 이

표 5.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호상관: 취업주부

(N=42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학력	1.00							
② 배우자 정서적 지원	.17 ***	1.00						
③ 연령	-.08	.00	1.00					
④ 월평균 수입	.26 ***	.04	.10	1.00				
⑤ 어려움극복효능감	.07	.28 ***	.04	.12 *	1.00			
⑥ 직업성취	.32 ***	.25 ***	-.03	.24 ***	.35 ***	1.00		
⑦ 자녀 행복	.07	.21 ***	-.12 *	.01	.16 ***	.08	1.00	
⑧ 행복	.19 ***	.60 ***	.02	.16 ***	.59 ***	.46 ***	.27 ***	1.00

* $p < .05$, *** $p < .001$

었고, 마지막으로 자녀행복에서 행복으로 연결된 경로가 $P=.10$ 의 정적인 값을 보였다.

그림 2에서 직업성취로 연결되었던 3개의 모든 경로들은 유의하였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은 $P=.30$, 학력은 $P=.28$, 배우자 정서적 지원은 $P=.12$ 로서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정적이었다.

그런데 그림 2에서 자녀 행복으로 연결되었던 3개의 경로 중에, 월평균 수입에서 자녀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배우자 사회적지원에서 자녀행복으로($P=.18$) 및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자녀행복으로($P=.11$) 연결되는 경로는 다른 경로에 비해 높은 계수는 아니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들이 그림 2의 연구모형에서는 4개였는데, 그림 4에서는 그 중에 2개의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배우자 정서적지원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는 $P=.28$ 로 꽤 높은 정적

경로계수를, 월평균 수입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는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경로계수지만 $P=.11$ 로 정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학력 및 연령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 연결되었던 2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검증모형에서 삭제되었다. 학력은 비록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삭제되었어도, 학력에서 직업성취로 연결되는 경로가 상당히 유의하여 검증모형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남았다. 그러나 연령은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 연결되었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검증모형에서 연령 변인 자체가 제외되었다.

따라서 그림 4의 검증모형에서는 그림 2의 연구모형에서 제안했던 변인들 중에 1개 즉 연령변인이 삭제되었으며, 4개의 경로선이 삭제되었다. 즉 월평균 수입에서 행복, 월평균 수입에서 자녀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선과, 학력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 연령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선이 유의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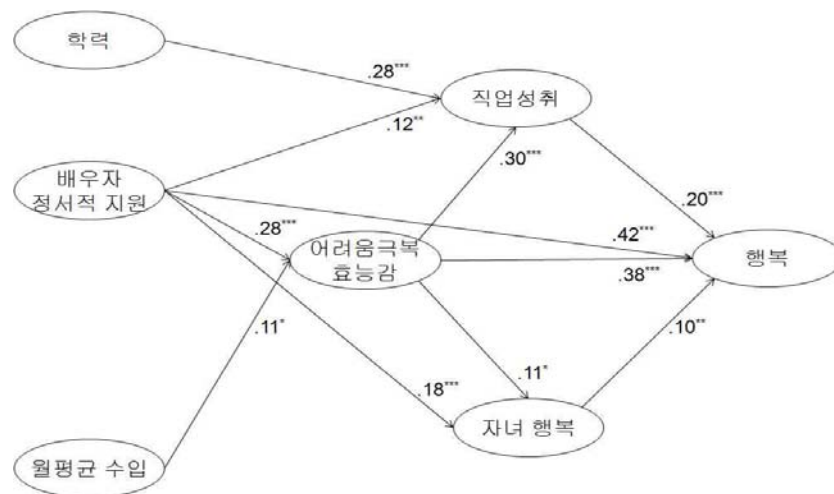


그림 4.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경로분석: 취업주부 (N=421)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취업주부의 경우에 연령은 행복과 전혀 무관한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의 전업주부에 대한 경로분석에서 학력이 행복과 전혀 무관한 변인으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전업주부와 달리 취업주부는 학력은 행복에 관련되는 변인이지만 오히려 연령이 행복과 무관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학력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삭제되었지만, 학력에서 직업성취로 연결되는 경로가 유의함으로써, 학력 변인은 전업주부의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한편 월평균 수입에서 행복 및 월평균 수입에서 자녀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삭제되었지만, 월평균 수입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월평균 수입의 행복에 대한 영향은 간접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2개 경로선이 삭제되었어

도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월평균 수입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의 강도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주부의 행복에 대해 경로분석한 그림 4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배우자 정서적 지원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이고, 그 다음으로 어려움극복효능감의 영향력도 매우 컸다. 그 다음으로 직업성취가 취업주부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는데, 자녀 행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보다 2배나 큰 경로계수를 보였다. 취업주부의 직업성취는 어려움극복효능감, 학력,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고 학력이 높으며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취업주부가 직업에서 더 많은 성취를 하였다. 자녀들의 행복 정도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남편이 취업주부를 정서적으로 충분히 잘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수록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더욱 행복하고, 취업주

부가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을수록 역시 자녀들이 더 행복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정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더 높았다.

그림 4의 경로분석 결과를 효과분석한 것이 표 6이다. 행복에 대한 전체효과를 비교해 보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미치는 전체효과가 .59로 가장 높은 효과계수를 나타내었다. 그 중에 직접효과가 .42이고 간접효과가 .17로 모두 매우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취업주부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으면 행복이 직접 증가하고, 직업성취나 자녀 행복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행복이 증가하였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45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직접효과 .38에 간접효과가 .07로서 모두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으면 취업주부의 행복이 증가하고, 직업성취나 자녀 행복을 경유하여 행복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도 있었다.

직업성취가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21로서 간접효과가 없으므로 이것은 모두 직접효과였다. 이러한 전체효과는 투입변인들의 전체효과 계수 중에 세 번째로 큰 값으로서, 자녀 행복이 취업주부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보다 훨씬 컸다. 그러므로 직업에서의 성취는 취업주부의 행복감을 크게 증진시켜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 행복이 취업주부의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10이었는데 모두 직접효과였다. 그

러므로 자녀가 행복하다고 지각할수록 취업주부들이 행복하였다. 그러나 취업주부는 직업에서의 성취로 인해 느끼는 행복이 자녀가 행복하다고 지각함으로써 느껴지는 행복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수입도 행복에 대해 .10의 전체효과를 보였다. 이 값은 자녀 행복이 취업주부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크기와 동일하였다. 효과계수가 정적인 값을 보이므로, 월평균 수입이 더 많을수록 취업주부는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석된다.

학력도 행복에 대해 유의한 전체효과가 있었으나, .06으로 가장 낮은 효과계수를 보였다. 이 값은 모두 간접효과로서 직접효과는 없었다. 그러므로 학력이 높으면 직업성취가 높고, 직업성취가 높으면 행복감이 높아짐으로써, 학력이 취업주부의 행복에 대해 간접효과를 갖는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연령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취업주부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을 때 극도로 가장 행복하고, 본인이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을 때에도 역시 매우 행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에서 성취할 때도 행복하고, 물론 자녀가 행복하다고 지각할 때도 행복하나 직업에 성취할 때가 두 배 정도로 더 행복하였다. 취업주부는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행복하는데, 그 영향력의 정도는 자녀가 행복함으로써 행복한 정도와 동일했다. 그리고 높은 학력은 직업성취를 통해, 행복에 대해 약하지만 의미있는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연령은 행복에 전혀 의미있는 영향이 없었다.

표 6.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효과분석: 취업주부¹⁾ (N=421)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학력	→ 어려움극복효능감	-.01 (- .10)	-	-.01 (- .10)
	→ 직업성취	.28 (6.35)***	-.00 (- .10)	.28 (5.99)***
	→ 자녀 행복	-	-.00 (- .10)	-.00 (- .10)
	→ 행복	-	.06 (2.12)*	.06 (2.12)*
배우자 정서적 지원	→ 어려움극복효능감	.28 (5.80)***	-	.28 (5.80)***
	→ 직업성취	.12 (2.60)**	.08 (4.35)***	.20 (4.34)***
	→ 자녀 행복	.18 (3.63)**	.03 (2.03)*	.21 (4.38)***
	→ 행복	.42 (12.81)***	.17 (6.35)***	.59 (15.15)***
연령	→ 어려움극복효능감	.03 (.64)	-	.03 (.64)
	→ 직업성취	-	.01 (.64)	.01 (.64)
	→ 자녀 행복	-	.00 (.62)	.00 (.62)
	→ 행복	-	.01 (.64)	.01 (.64)
월평균 수입	→ 어려움극복효능감	.11 (2.22)*	-	.11 (2.22)*
	→ 직업성취	-	.03 (2.10)*	.03 (2.10)*
	→ 자녀 행복	-.02 (- .32)	.01 (1.55)	-.00 (- .08)
	→ 행복	.05 (1.62)	.05 (2.08)*	.10 (2.56)*
어려움극복효능감	→ 직업성취	.30 (6.56)***	-	.22 (6.56)***
	→ 자녀 행복	.11 (2.17)*	-	.11 (2.17)*
	→ 행복	.38 (11.30)***	.07 (4.83)***	.45 (13.39)***
직업성취	→ 행복	.21 (6.15)***	-	.21 (6.15)***
자녀 행복	→ 행복	.10 (3.20)**	-	.10 (3.20)**

()는 t값

* $p < .05$, ** $p < .01$, *** $p < .001$

3.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

- 1) '월평균 수입→자녀 행복'의 output에서 직접효과는 -.015, 간접효과는 .012, 전체효과는 -.004이었으며, 표 6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록한 것임.
'직업성취→행복'의 전체효과와 직접효과가 output에서 .205였으므로, 표 6에는 소수점 둘째

인들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가 표 7이다. 전업주부 남편 집단의 행복은 어려움극복효능감과 $r = .57$ 로 가장 상관계수가 높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정서적 지원과도 $r = .44$ 로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세 번째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직업성취로서 $r = .30$ 이었는데,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록하여, .21로 표기한 것임. 경로 그림(path diagram) output에서는 .20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림 4에서는 .20으로 표기함

표 7.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호상관: 전업주부 남편

(N=40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학력	1.00							
② 배우자 정서적 지원	.04	1.00						
③ 연령	-.07	-.01	1.00					
④ 월평균 수입	.17 ***	-.01	.08	1.00				
⑤ 어려움극복효능감	.05	.39 ***	-.08	.05	1.00			
⑥ 직업성취	.31 ***	.16 ***	-.03	.25 ***	.29 ***	1.00		
⑦ 자녀 행복	.10	.19 ***	-.10 *	.04	.19 ***	.12 *	1.00	
⑧ 행복	.08	.44 ***	.02	.08	.57 ***	.30 ***	.18 ***	1.00

* $p < .05$, ** $p < .01$, *** $p < .001$

역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의 행복과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 간에 상관은 $r = .18$ 로서 비록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외에 학력, 연령, 월평균 수입과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은 거의 무상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는 외에도,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r = .39$ 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고, 직업성취와도 $r = .29$, 자녀 행복과도 $r = .19$ 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배우자 정서적 지원은 행복 및 어려움극복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외에도, 자녀 행복 및 직업성취와도 $r = .16 \sim .19$ 의 낮지만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학력은 행복과 무상관이었지만, 직업성취와 $r = .31$ 의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수입은 행복과는 무상관이었지만, 직업성취와는 $r = .25$ 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림 5는 그림 2의 연구모형을 전업주부 남

편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그림 5의 모형적합도를 보면, GFI=.98, AGFI=.91, NFI=.93으로서 모두 .90이 넘었고, RMR=.04로서 .05 미만이었다. 그러므로 그림 5는 모형적합도가 매우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었던 5개 경로 중에 3개만 유의했으며, 삭제된 2개 경로는 월평균 수입에서 행복으로 연결된 경로 및 자녀 행복에서 행복으로 연결된 경로였다. 따라서 월평균 수입이 얼마인지 여부와, 자녀가 행복한지 여부는,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유의한 3개의 경로 중에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행복으로 연결된 경로가 $P=.43$ 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정서적 지원 $P=.24$, 직업성취 $P=.12$ 의 순서였다. 그러므로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을수록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또한 직업에서 성취할수록 전업주부

의 남편들은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인 어려움극복효능감은 배우자 정서적 지원으로부터 $P=.39$ 의 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직업성취($P=.26$)와 자녀 행복($P=.14$)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증진되며,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직업에서의 성취수준도 높이고, 자녀들이 행복한 것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행복과 어려움극복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에, 자녀의 행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림 2의 연구모형에서 가정되었던 배우자 정서적 지원에서 직업성취로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경로가 삭제되었다.

학력은 직업성취에 대해 $P=.30$ 의 높은 정적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력이 높

을수록 직업에서의 성취도가 높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학력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는 없지만, 학력이 직업에서의 성취를 증진시키고, 향상된 직업성취가 행복을 증진 시킴으로써 학력도 간접적으로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 2의 연구모형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림 5에서 삭제된 변인은 2개였다. 연령과 월평균 수입으로서, 이 두 변인과 연결된 어떠한 경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령과 월평균 수입은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 8은 그림 5를 효과분석한 결과이다.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대한 전체효과를 보면, 어려움극복효능감의 효과계수가 .47로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직접효과 .43과 더불어 간접효과도 .04가 추가되었다. 배우자 정서적 지원의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대한 직접효과는 .25로서 어려움극복효능감보다 훨씬 낮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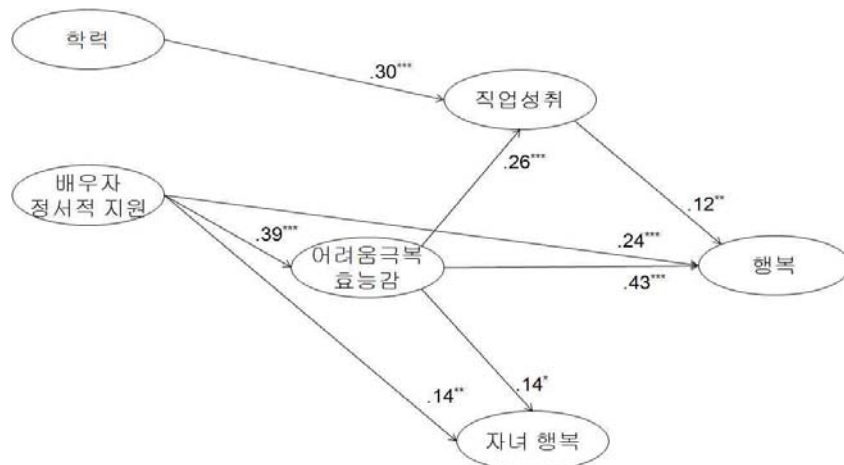


그림 5.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경로분석: 전업주부 남편 ($N=404$)

표 8.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효과분석: 전업주부 남편²⁾

(N=404)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학력	→ 어려움극복효능감	.02 (.50)	-	.02 (.50)
	→ 직업성취	.30 (6.55)***	.01 (.49)	.30 (6.46)***
	→ 자녀 행복	-	.00 (.49)	.00 (.49)
	→ 행복	-	.05 (1.85)	.05 (1.85)
배우자 정서적 지원	→ 어려움극복효능감	.39 (8.40)***	-	.39 (8.40)***
	→ 직업성취	.05 (.99)	.10 (4.48)***	.15 (3.18)**
	→ 자녀 행복	.14 (2.63)**	.05 (2.46)*	.19 (3.89)***
	→ 행복	.25 (5.77)***	.19 (6.78)***	.44 (9.75)***
연령	→ 어려움극복효능감	-.08 (- 1.68)	-	-.08 (- 1.68)
	→ 직업성취	-	-.02 (- 1.60)	-.02 (- 1.60)
	→ 자녀 행복	-	-.01 (- 1.40)	-.01 (- 1.40)
	→ 행복	-	-.04 (- 1.66)	-.04 (- 1.66)
월평균 수입	→ 어려움극복효능감	.05 (1.08)	-	.05 (1.08)
	→ 직업성취	-	.01 (1.05)	.01 (1.05)
	→ 자녀 행복	.03 (.70)	.01 (.99)	.04 (.83)
	→ 행복	.03 (.85)	.03 (1.11)	.06 (1.29)
어려움극복효능감	→ 직업성취	.26 (5.29)***	-	.26 (5.29)***
	→ 자녀 행복	.14 (2.57)*	-	.14 (2.57)*
	→ 행복	.43 (9.89)***	.04 (2.70)**	.47 (11.04)***
직업성취	→ 행복	.12 (3.04)**	-	.12 (3.04)**
자녀 행복	→ 행복	.03 (.76)	-	.03 (.76)

()는 t값

* p<.05, ** p<.01, *** p<.001

이지만, 간접효과가 .19로 매우 크므로, 결과적으로 전체효과가 .44나 됨으로써, 어려움극복효능감과 전체 효과 크기에서 큰 차이가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유의한 전체효과를 나타낸 변인은 직업성취였다. 간접효과는 없었고 모두 직접효과이었다. 효과 계수가 .12이므로, 어려움극복효능감이나 배우자 정서적 지원보다 낮은 효과를 보였다. 그

러나 유의한 정적 계수를 나타내므로, 직업에서 성취할수록 전업주부 남편들은 더욱 행복함을 의미한다.

어려움극복효능감, 배우자 정서적 지원, 직업성취 외에는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유의

2) ‘학력→직업성취’의 output에서 직접효과는 .298, 간접효과는 .006, 전체효과는 .304이었으며, 표 8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록한 것임.

한 효과계수를 보이는 변인이 없었다. 그러므로 학력, 연령, 월평균 수입, 자녀 행복 모두,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에 아무런 실제적인 영향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4.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표 9는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과 관련 변인들의 상호상관을 분석한 결과이다.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은 어려움극복효능감과 $r = .68$ 로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배우자 정서적 지원과도 $r = .59$ 로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보였다. 비록 이 두 변인보다는 낮은 계수이나, 직업성취도 $r = .27$ 의 정적인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자녀의 행복과 월평균 수입도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과 각각 $r = .14 \sim .15$ 로 낮지만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학력과 연령은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었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은 행복 외에도,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r = .40$ 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직업성취($r = .21$) 및 자녀 행복($r = .19$)과 낮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배우자 정서적 지원은 행복 및 어려움극복효능감과 정적 상관 외에도, 자녀 행복 및 직업성취와 낮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학력은 행복과 무관하였지만, 직업성취 및 월평균 수입과 모두 $r = .28$ 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림 2의 연구모형을 취업주부 남편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가 그림 6이다. 모형적합도를 보면, $GFI = .98$, $AGFI = .90$, $NFI = .95$ 로 모두 .90이상으로 확인되었고, $RMR = .04$ 로서 .05 미만이었다. 이러한 적합도지수들에 기초해 볼

때, 그림 6은 모형적합도가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을 보면, 그림 2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었던 5개의 경로들 중에 3개의 경로만 유의하였다. 전업주부 남편을 대상으로 검증한 그림 5에서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수입에서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으로, 또한 자녀 행복에서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으로 직접 연결된 경로선 2개가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부인이 전업주부이든 취업주부이든 관계없이 남편들의 행복은 월평균 수입의 정도나, 자녀가 행복한지 여부에 의해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3개의 경로 중에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행복으로 연결된 경로계수가 $P = .50$ 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정서적 지원이 $P = .38$, 직업성취 $P = .11$ 로서,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순서와 동일했다. 그러므로 취업주부든 전업주부든 그들의 남편들은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을 느꼈으며,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직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행복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은 배우자 정서적 지원으로부터 강한 정적 영향($P = .40$)을 받았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직업성취($P = .17$)와 자녀 행복($P = .15$)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인이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해 줄수록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증진되며, 높아진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취업주부 남편의 직업에서의 성취수준도 높이고, 자녀들의 행복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업주부 남편과 달리 취업주부 남

표 9.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호상관: 취업주부 남편

(N=42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학력	1.00							
② 배우자 정서적 지원	.01	1.00						
③ 연령	-.07	-.02	1.00					
④ 월평균 수입	.28 ***	.07	.02	1.00				
⑤ 어려움극복효능감	.03	.40 ***	-.03	.10	1.00			
⑥ 직업성취	.28 ***	.15 ***	-.07	.29 ***	.21 ***	1.00		
⑦ 자녀 행복	.08	.16 ***	-.13 *	.05	.19 ***	.16 ***	1.00	
⑧ 행복	.06	.59 ***	-.03	.14 ***	.68 ***	.27 ***	.15 ***	1.00

* $p < .05$, ** $p < .01$, *** $p < .001$

편을 분석한 그림 6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자녀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어려움극복효능감에 영향력이 있었다.

학력은 직업성취에 대해 $P=.27$ 의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학력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의미없는 것으로 삭제되었다. 이는 전업주부 남편집단에서와 동일한 결과였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성취 정도가 높지만, 학력 수준에 의해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연구모형에 포함되었으나, 그림 6에서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삭제된 변인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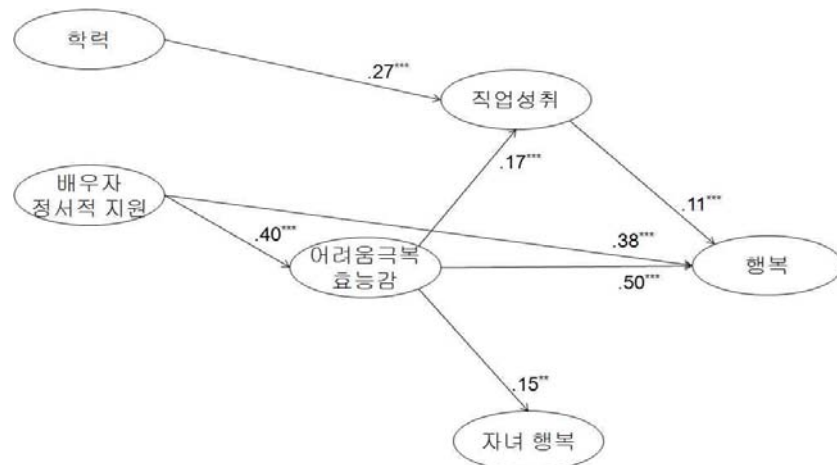


그림 6.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경로분석: 취업주부 남편

(N=421)

표 10.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효과분석: 취업주부 남편³⁾

(N=421)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학력	→ 어려움극복효능감	.00 (.06)	-	.00 (.06)
	→ 직업성취	.27 (5.87)***	.00 (.06)	.27 (5.79)***
	→ 자녀 행복	-	.00 (.06)	.00 (.06)
	→ 행복	-	.03 (1.15)	.03 (1.15)
배우자 정서적 지원	→ 어려움극복효능감	.40 (8.85)***	-	.40 (8.85)***
	→ 직업성취	.07 (1.45)	.07 (3.24)**	.14 (3.04)**
	→ 자녀 행복	.10 (1.91)	.06 (2.69)**	.16 (3.27)**
	→ 행복	.38 (10.96)***	.21 (7.64)***	.59 (14.95)***
연령	→ 어려움극복효	-.02 (- .51)	-	-.02 (- .51)
	→ 직업성취	-	-.00 (- .51)	-.00 (- .51)
	→ 자녀 행복	-	-.00 (- .51)	-.00 (- .51)
	→ 행복	-	-.01 (- .51)	-.01 (- .51)
월평균 수입	→ 어려움극복효능감	.08 (1.59)	-	.08 (1.59)
	→ 직업성취	-	.01 (1.45)	.01 (1.45)
	→ 자녀 행복	.02 (.51)	.01 (1.439)	.04 (.73)
	→ 행복	.04 (1.16)	.04 (1.56)	.08 (1.88)
어려움극복효능감	→ 직업성취	.18 (3.48)***	-	.18 (3.48)***
	→ 자녀 행복	.15 (2.83)**	-	.15 (2.83)**
	→ 행복	.50 (14.40)***	.02 (1.69)	.52 (15.00)***
직업성취	→ 행복	.11 (3.30)***	-	.11 (3.30)***
자녀 행복	→ 행복	-.02 (- .66)	-	-.02 (- .66)

()는 t값

* $p < .05$, ** $p < .01$, *** $p < .001$

령과 월평균 수입이었다. 그러므로 연령과 월평균 수입은 어려움극복효능감에 영향이 없고, 월평균 수입은 이외에도 자녀의 행복이나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을 효과분석하여 정리한 결과가 표 10이다.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은 배우자 정서적 지원의 전체효과가 .59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 값은 직접효과가 .38이고 간접효과가 .21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간접효과는 배

3) '월평균 수입→자녀 행복'의 output에서 직접효과는 .024, 간접효과는 .011, 전체효과는 .035이었으며, 표 10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록한 것임. '어려움극복효능감→직업성취'의 전체효과와 직접효과가 output

에서 .175였으므로, 표 10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록하여 .18로 표기한 것임. 경로 그림(path diagram) output에서는 .17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림 5에서는 .17로 표기함.

우자 정서적 지원이 어려움극복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 효과이다. 배우자 정서적 지원이 어려움극복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가 .40이나 되어, 전체효과도 .40이 되었다. 배우자 정서적 지원은 어려움극복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효과가 가장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효과가 가장 컸다.

배우자 정서적 지원 다음으로 어려움극복효능감의 전체효과가 .52로 역시 대단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 값은 직접효과가 .50이고 간접효과는 .02로서, 거의 대부분이 직접효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효과는 배우자 정서적 지원이 가장 높았지만, 직접효과의 측면에서는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변인 외에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업성취였다. 직접효과가 .11로 배우자 정서적 지원이나 어려움극복효능감보다는 많이 낮은 값이나,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자녀 행복, 학력 및 연령이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대한 전체효과는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취업주부의 남편들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을수록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아져서 행복을 느끼며, 또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직접적으로도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나 어려움극복효능감에 비해 약 1/5 정도의 수준이나 직업에서의 성취도 역시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의미있는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 변인에 비해 자녀의 행복이나 본인의 학력 및 연령은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그리고 그들의 남편 집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한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김혜원, 1997; 조금숙, 조증열, 2004),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행복(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이준택, 2003), 전업주부와 남녀 직장인의 행복(박영신, 김의철, 2009b), 맞벌이 부부의 직장-가정 갈등과 우울(이주희, 이은희, 2000)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학적 연구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만이 아니라 그들 각 집단의 남편들도 짝을 지워 표집하여, 전업주부의 남편과 취업주부의 남편들이 지각하는 행복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기혼의 부부집단 중에서도 자녀가 없는 신혼단계의 부부가 아니라 학령기 자녀를 둔 중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설계를 통해, 무작위로 성인 남녀를 표집하여 성별 비교를 하는 것보다 정교하게 연구를 설계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한국의 중년기 성인 부부집단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서의 성차 및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집단의 차이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들 중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전업주부 취업주부 및 그들의 남편 집단 모두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은 행복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가 매우 큰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중년기 집단에서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허지연, 손은정, 2008),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이 남자 직장인 행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8)와 일관된 맥락이다. 특히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이고(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지원이 결혼만족도(김시연, 서영석, 2010; 장춘미, 2009)와 부부관계에서의 적응(장수지, 2010)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였다.

이 연구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극복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해 줌으로써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행복이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서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사실은 여러 연령층에서 폭넓게 밝혀져 왔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자기효능감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움극복효

능감이 행복 증진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기술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한다는 사실은 Bandura(1997) 이후 많은 경험과학적 연구들에서 확인되어 왔다. 예컨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때,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2009).

이 연구의 결과는 성인과 노인들의 행복에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것(박영신, 김의철, 2009a)과, 성인 집단 중에서도 여자 직장인의 경우에 월평균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직업에서의 성취, 자녀의 성공보다도 자기효능감이 행복을 가장 의미있게 설명하는 예언변인임을 밝힌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9b)와도 일치한다. 또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증진되는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8)와도 관련된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집단에서 자녀와의 세대갈등이 삶의 질을 낮추지만, 높은 자기효능감이 세대갈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은 증진시킨 것으로 밝힌 연구결과(박영신, 김의철, 박영균, 2010)와도 일관된 맥락으로 보여진다. 중년기 성인 남녀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힌 연구(허지연, 손은정, 2008)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중년기 성인 남녀집단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본인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부부상담 과정에 활용될 가치가 있다.

둘째, 성인 여자들이 성인 남자보다 자녀와 심리적 유대가 강하고 자녀의 행복이 본인의 행복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취업주부든 전업주부든 성인 여자들은 자녀가 행복할수록 행복하였으나, 취업주부 남편이든 전업주부 남편이든 성인 남자들은 자녀의 행복이 본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의미있는 변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자들은 직업에서의 성취가 자녀의 행복보다 본인의 행복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직장인 집단에서는 정서적 지원과 직업성취가, 전업주부 집단에서는 자녀의 성공과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대해 높은 설명변량을 보인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9b)와 공통의 결과를 보인다. 물론 각 선행 연구들에서 다른 독립변인들이 달랐지만, 어쨌든 성별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김명소, 한영석, 2006)과도 같은 맥락이다.

자녀의 성공이 전업주부 집단의 행복에 의미있는 예언변인이었다는 사실(박영신, 김의철, 2009b)은 한국인의 모자관계가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확대된 자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김의철, 박영신, 2006a)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 여자들의 경우에 자녀의 행복이 본인의 행복으로 직접 연결된 결과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애착형성이 더 강하게 되고 모성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중년기 성인 여자들의 자기개념은 성인 남성들에 비해 보다 관계적이고 자녀 중심적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자기개념 요인구조에서의 성차를 밝힌 연구(이종구, 이해경, 김명소, 2003)에 의하면, 남자들이 직업성취나 학업성취 등 개인적인 성취와 관련된 자기개념에서 긍정적이고, 여자들은 부모 역할과 관련된 자기개념이나 집단적 자기개념이 더욱 높았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자기정체성이 아내보다는 어머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들에 비해 관계적 자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 시각(조혜자, 방희정, 2006)도,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의 기초를 제공한다.

자녀의 행복이 전업주부든 취업주부든 성인 여자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직접효과가 있는 반면, 전업주부 남편이든 취업주부 남편이든 성인 남성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직접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한국의 중년기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서 분명한 성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왜 이러한 성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새로운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성차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밝혀졌다. 그러므로 중년기 성인의 행복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성별 변인을 연구설계에서 고려하든지, 아니면 성별 변인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통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중년기 성인 집단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성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집단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었다. 성인 여자라 해서 행복을 지각하는 심리과정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유무에 따른 전업주부 및 취업주부의 분류가 행복을 설명하는 요소들에서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였다. 전업주부 집단의 경우는 자녀의 행복이 본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의미있는 변인이었는데, 취업주부 집단도 물론 자녀의 행복이 의미있는 변인이었으나, 자녀의 행복보다는 본인 직업에서의 성취가 두 배 정도로 행복에 더욱 영향을 미쳤다.

성차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성인 여자 집단 내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에 따른 차이가 확연하게 있으므로, 중년기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토함에 있어 성별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 성인 여자의 경우에 직업유무라는 기준이 행복의 형성과정에서만 아니라 다른 종속변인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년기 성인 여자에 대한 추후연구를 진행할 때 직업유무 변인을 고려하여,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집단간에 심리 행동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다양하게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물론 전업주부나 취업주부 모두 자녀와 관련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점에서 공통점도 밝혀졌지만, 전업주부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취업주부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차이가 있었다(조금숙, 조증열, 2004). 또한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아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으며(김혜원, 김명소, 1998), 전업주부는 자녀의 성별이, 취업주부는 직업의 종류가 더욱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김혜원, 1997). 전업주부들은 얼마나 아내로서의 역할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았다면, 취업주부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만족도가 높은 차이가 있었다(김기범, 전경숙, 2006). 전업주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성공과 월평균수입이 부각되었다면, 여자 직장인의 행복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박영신, 김의철, 2009b). 물론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의 연구에서 여자 직장인은 기혼의 취업주부만은 아니고 미혼의 여자 직장인들도 포함한 것이다.

자녀와 관련된 결과는 아니지만,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또는 직장여성의 행복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도 있다. 직장여성이 전업주부보다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인생목표, 대인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았으며(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이준택, 2003),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일에 대한 몰입과 만족이 더 높았다(남순현, 2009). 그렇다고 취업주부들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취업주부들의 경우에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기제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장재윤, 김효선, 2008)하다.

넷째, 아내의 직장유무에 따라 아내의 정서적 지원이 남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취업주부 남편이 전업주부 남편에 비해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았을 때 더욱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물론 전업주부 남편도 아내가 정서적

지원을 해 주었을 때 행복감이 의의있게 증가하였지만, 아내의 정서적 지원보다는 본인의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취업주부 남편도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지만, 어려움극복효능감보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행복을 결정하는 더욱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부각되었다.

전업주부 남편보다 취업주부 남편이 아내로부터 정서적 지원으로 인해 더욱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아내가 취업주부인 경우에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에서 성취를 통한 행복이 자녀의 성공으로 인한 것보다 더욱 큰 느끼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취업주부는 가정생활보다는 직장 및 사회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편은 자녀가 행복한 것이 자신의 행복에 영향이 없고 직업에서의 성취가 오로지 중요하지만, 취업주부는 직업에서의 성취만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도 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취업주부 경우에 자녀의 행복보다도 본인 직업에서의 성취를 본인의 행복 결정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두 배나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인의 직업적 성취에 몰두하는 정도가 더 강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다보면 취업주부는 현실적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와 함께 생활하는 남편들은 아내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의 결핍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여건에 있으므로, 전업주부 남편보다는 취업주

부 남편이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으로부터 더욱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전업주부 남편과 취업주부 남편의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섯째,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을 갖고 있는 중년기 성인 집단에서는 월평균 수입 자체보다 직업에서의 성취감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성인 남자들의 행복 결정과정에서 직업성취가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 전업주부 남편과 취업주부 남편 모두 배우자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라는 세 변인이 행복을 구성하는 핵심 변인인 점에서 일치하였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나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전업주부나 취업주부 집단에서도 모두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직업성취는 전업주부 집단과는 무관하였다. 물론 취업주부 집단에서는 직업성취가 행복을 결정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성별보다는 직업유무 기준에 의거하여,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직업이 있는 성인 경우는 직업에서의 성취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직업성취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미혼과 기혼의 성인 남녀 집단에서 직업성취가 행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9a)나, 미혼과 기혼의 남자 직장인 집단에서 직업성취가 행복에 대해 높은 설명변량을 보인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9b)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 경

우에 직무성취도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결과(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2009)도 결국은 직업에서의 성취가 만족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직업을 갖고 있는 남편 집단에서 직업성취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포함된 반면에 월평균 수입 변인은 행복에 전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업주부 집단에서는 월평균 수입이 배우자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자녀 행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계수를 보였으나, 어쨌든 행복에 대해 직접효과가 있었다. 취업주부 경우에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행복에 대해 직접효과가 없고 매우 낮은 간접효과만 있었다. 그러므로 직업을 갖고 있는 남편들이나 취업주부와 같은 직장인 경우에, 돈이라는 물질적 재화 그 자체 보다는 직업에서의 성취감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수입을 행복모형에 포함하였을 때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긍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지만, 월평균 수입을 제외하여도 행복모형의 적합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9a). 이는 월평균 수입이 많으면 적은 것보다 행복감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성취, 자녀성공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된다면, 월평균 수입이 행복의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토대하여 볼 때,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다양하게 포함된 분석대상 중에 전업주부들의 성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의 연구에서도 남녀 직장인의 행복을 월평균 수입이 의미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전업주부 집단에서 월평균수입과 자녀 성공이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결국 전업주부들은 남편이 매달 갖다 주는 월급봉투가 풍족할 때 행복감이 올라가지만, 취업주부나 그들의 남편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월평균 수입 자체보다 직업에서의 성취감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직업에서의 성취감 내에는 월평균 수입이라는 경제적인 요소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월평균 수입과 같이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직업활동을 통한 성취감이라는 심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중년 직장인들의 행복은 이러한 직업성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및 그들의 남편 집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 공통점도 있지만 집단별로 고유한 특징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의 남편 집단이 갖는 행복의 심리과정들을 밝혔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성별 차이를 초월하여 직장인들이 갖는 공통의 행복 요소들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의 행복 형성요인만이 아니라 이러한 네 집단이 갖는 심리특성에서의 다양한 차이점들을 정교하게 규명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네 집단이 삶에서 무엇을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인식하는지, 무엇을 고통스러운 실패로 지각하는지, 앞으로 미래에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등, 성취와 관련된 의식에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이러한 성취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심리특성의 차이는 주부로 하여금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하는지, 취업주부의 길을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및 그들의 남편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는, 각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직장 갈등 및 가정 내에서 부부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집단 구성원의 심리에 대한 이해는,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와 행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부부상담이나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유용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주부이나 전업주부이나는 성별과 같이 자연적으로 구분되는 집단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업주부가 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기본적인 모형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 두 집단에 대한 비교나 관련 변인의 해석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취업주부 경우에 남편집단과 같이 직업성취변인을 포함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취업주부들도 전업주부와 동일한 직업성취 변인이 제외된 모형으로 분석을 추가해 보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를 직접 비교할 수 있고 흥미로운 결과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년기 성인에게 건강은 행복을 결정

하는 매우 비중있는 변인인데, 이 연구의 모형에서 건강 요인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중년기 성인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 중년기 성인의 행복모형을 검토함에 있어 건강 변인에 대한 고려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제 이 글을 맺으며, 서양에서 이루어진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에 대한 성차 연구들이 동양의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Lucas & Gohm, 2000)을 상기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중년기 성인집단의 행복 형성과정에서의 공통점,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점에는 한국사회의 토착적인 가치와 정서를 포함하는 심리들이 스며들어 있다. 앞으로 한국인 행복의 심리에서 성차 문제를 다룸에 있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고유한 토착적 특징 및 문화적 영향을 심도있게 통찰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혜련, 최서연 (2001). 기혼여성 직장-가정 갈등의 예측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1), 23~42.
- 김기범, 전경숙 (2006). 한국 중년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행복.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206~207.
-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이준택 (2003). 직장여성과 전업주부의 행복과 행복한 삶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

- 집, 237~238.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명소, 한영석 (2006). 중년 여성의 삶의 질과 행복.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4~205.
- 김민정, 이희경 (2006).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 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98~499.
- 김시연, 서영석 (2008).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 각된 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43~1265.
- 김시연,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 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 김은미, 구재선, 최상진 (2003). 행복에 대한 사회문화적 표상.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 회 논문집, 373~374.
- 김은희, 이종한 (2005).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56~157.
- 김의철, 박영신 (2006a).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 지: 사회문제, 12(4), 1-36.
- 김의철, 박영신 (2006b).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28.
- 김혜원 (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 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태도, 역할 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11~127.
- 김혜원, 김명소 (1998). 취업이 기혼여성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 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35~50.
- 김혜원, 김명소 (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 녕감과 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 성, 5(1), 27~41.
- 남순현 (2009).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비교. 인간발달 연구, 16(1), 197~222.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 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 리 탐구. 문화심리학총서 제 5권. 서울: 교 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 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 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 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김의철 (2009a).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95~132.
- 박영신, 김의철 (2009b).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67~495.
- 박영신, 김의철 (2009c).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교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박영균 (2010). 세대 차이와 갈등은 삶의 질을 낮추는가?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33~559.
- 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2009). 사회적 지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사에 대한 단기 종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3(3), 413~442.
- 이정미, 이양희 (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33~58.
- 이종구, 이해경, 김명소 (2003). 한국 여성의 자아개념의 요인구조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2), 1~19.
- 이주희, 이은희 (2000). 맞벌이 부부의 직장, 가정의 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287~303.
- 장수지 (2010).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의 관계: 사회적 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효능감의 매개효과 검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237~238.
- 장재윤, 김혜숙 (2003). 직장-가정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우리나라 관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23~42.
- 장재윤, 김효선 (2008).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역할 행동특성의 차이, 행동 전이 및 직장-가정 양립간의 관계: 맞벌이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2), 265~283.
- 장춘미 (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53~171.
- 전미애, 이종한 (2005).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 교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54~155.
- 조금숙, 조증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1.

- 조현주 (2006). 중년 여성의 우울증과 부부치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10~211.
- 조혜자, 방희정 (2006). 중년 여성의 자아정체성.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2~203.
- 차영란, 김기범, 전경숙 (2007). 중년여성의 일상생활 속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299~313.
- 허지연, 손은정 (2008). 청년기와 중년기 집단에서의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40~341.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 Row.
- Diener, E. & Suh, E. M. (Eds.).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The MIT Press.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Keynote speech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1~23. August 19.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Kuh, D., Hardy, R., Rodgers, B., & Wadsworth, M. J. (2002). Lifetime risk factors for women's psychological distress in mid life. *Social Science & Medicine*, 55, 1957~1973.
- Lucas, R. E., & Gohm, C. L. (2000). Age and sex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291~317. Cambridge: The MIT Press.
- Sharon, E., Kurpius, R., Nicpon, M. F., & Maresh, S. E. (2001). Mood, marriage and menopau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77~84.
- Snyder, D. K. (2010). The importance of marital happiness in emotional and physical well-being: A cross-cultur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25~35. August 19.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차 원고접수 : 2011. 1. 16
수정원고접수 : 2011. 2. 15
최종게재결정 : 2011. 3. 1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among middle-aged women and men: Comparative analysis of housewives, working women and their spouse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Inh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study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among middle-aged women and men by comparing housewives and working women and their spouse. A total of 1,650 respondents consisting of 825 women (housewife=404, working woman=421) and 825 men (spouse of housewife=404, spouse of working woman=421)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taining the following scales: resiliency of efficacy (Bandura, 1995),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spouse, happiness scale and background information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For housewives,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predictive of happiness: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spouse, resiliency of efficacy, happiness of children, monthly income, and age. For working women,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predictive of happiness: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spouse, resiliency of efficacy, occupational achievement, happiness of children, monthly income, and educational status. For spouse of housewives,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predictive of happiness: resiliency of efficacy,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spouse, and occupational achievement. For spouse of working women,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predictive of happiness: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spouse, resiliency of efficacy, and occupational achieve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for middle-aged women and men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spouse and resiliency of efficacy are highly predictive of happiness. Although happiness of children was predictive of happiness for housewives and working women, the same variable was not predictive of happiness for men. For men, occupational achievement was important. Although happiness of children was predictive of happiness of housewives and working women, for working women occupational achievement was twice as more important than happiness of children.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for men was that the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spouse was far more important for spouse of housewives than for spouse working women. For housewives, monthly income had a direct influence on happiness, while the same variable had only an indirect influence for working women. For working women occupational achievement had much more significant influence. For men, monthly income did not hav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happiness but occupational achievement was an important predictor.

Key words : middle-age, happiness,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spouse, resiliency of efficacy, occupational achievement, happiness of children, monthly income.